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장향실입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문화교육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한국학 연구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어문화교육은 1948년에 체코 프라하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등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래,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문화교육은, 2003년에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가 창립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동유럽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 동유럽 지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문화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해외에서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개최국의 연구자들과 학문 발전을 위해 소통하면서 타 언어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추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회는 주제별 특징에 맞추어 중국,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작년에는 COVID-19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겸한 혼합형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대면이 아닌 점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형식의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COVID-19 상황이 종식되어 동유럽 국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길 기대했으나 국내외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발표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이어 5월 22일 토요일에는 세종학당재단 대강연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회식과 주제특강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특강을 마치면, 3일간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정리하는 자리도 갖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 계신 연구자들께서 거리의 장벽을 허물고 더 넓고, 깊은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섯 개 출판사가 함께하는 도서전도 진행합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즐거운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이나 토론을 해 주신 분들께는, 한국어문화교육 전공 책이나 음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푸짐한 상품으로 즐거운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신 권기창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님, 이고르 데니숙 주대한민국우크라이나대리대사님,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소강춘 국립국어원 원장님,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특강을 해 주실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김소영 교수님,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 파베우 키다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영상 촬영 등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동유럽 지역 학자들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신 인하대학교 최권진 교수님, 우크라이나 남부 우신스키 국립사범대학교의 심현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회 임원진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미향 부회장님, 김서형, 김운주, 최은경 이사님께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셨고, 이후 임형재 부회장님, 김정우 부회장님, 김은정·정다운 총무이사님, 정다미 총무간사님께서 학술대회 홈페이지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해 주신 임형재 부회장님의 노고가 크십니다. 임원진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학술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술대회 발표집을 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하우와 학회지를 만들어 주시는 보고서, 또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서출판 박이정, 소통, 한글파크, 그리고 주식회사 세잎누리의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종학당재단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동유럽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이 좀더 발전·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참가하신 연구자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장향실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권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먼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1차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한국언어문화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의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에 길에서 BTS의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마마무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등 한류와 한국어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한국어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는 키이브 국립외국어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어 전공 입학생의 수가 일본어 전공생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동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한국학과 한국어 확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적 공감’과 ‘문화’가 국제외교의 주요 매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공공외교의 중심에 계신 학회여러분들께서 활발한 교류활동 통해 우리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통해 외국인 한국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상호 번영에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국민들은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도전을 겪고 있지만, 공동의 노력과 지혜로 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오늘 31차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
권기창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from the Embassy of Ukraine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holding of the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K)

여러분 안녕하세요?

Dear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Embassy of Ukraine, let me first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ch will be celebrated in September this year.

My deep appreciation goes to all those involved in arranging this meaningful conference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special greetings and thanks to the researchers for taking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join the conference.

Distinguished participants,

The value of language as instrument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ntries is indisputable. Cultural interaction is defined as exchange of ideas, information and other components of culture between the states and peoples in order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Ukraine's culture diplomacy is also focused on modern approaches that prioritize dialogue, intercultural relations, human contacts and interaction with foreign audiences.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wide usage of social networks, acceleration of a virtual world due to COVID-19 pandemic form new requirements. In this regard,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as well as nongovernmental actors in forming the positive country's image abroad is growing.

In my view,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broad and academic exchanges will serve as a channe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kraine, for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foster experts who share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I would like to wish this conference a resounding success and look forward to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nk you! 감사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이고르 데니슈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입니다.

국제한국어문화학회의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 창립 이래 지난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신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장항실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말 북방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진출의 거점으로서 주요한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확대와 우리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어 수요가 미주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동유럽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 아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 다양한 국제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동유럽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체코에서 첫 시행이 이루어져 19명이 응시하였으며 그간 시행 국가와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개국에서 1,2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라트비아가 첫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의 경우에도 동유럽 언어 중 폴란드어와 헝가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언어기준에 근거하여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시험을 개발하고, 현지 국가로의 석박사 과정 국비 유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언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포함한 한국어 보급 확대 및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학회의 목소에 귀 기울이며 학계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강춘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유럽 각국에서 참여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동유럽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던 30여 년 전, 한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사회주의 국가는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유럽과 그 주변 지역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여 준 곳, 저는 한국에게 동유럽이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수교 30주년 전후의 동유럽에서 성년기에 접어든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국학을 성찰하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면 방식의 국제 교류는 불가능해졌으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국제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던지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한국학 발전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받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국립국어원도 올해가 개원 30주년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동유럽의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위해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왔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매년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를 통해 지역의 한국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어 교재 보급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외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외 교재 개발 성과로는 ‘전 세계 유야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가 있으며, 현재는 세종학당에서 쓰일 교재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30년 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동유럽의 한국언어문화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장항실 회장님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진흥과 교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한국어 교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세종학당재단은 지난'19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후 지금까지 한국어·한국 문화의 확산과 교육 진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그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이룩한 언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포함하여 학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동유럽에서의 한국어문화 교육과 한국학 연구'입니다. 동유럽 지역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도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과거 소련의 해체 이후 많은 한국인들과 기업들이 진출하여, 현재 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연구를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도 폴란드 포즈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아르메니아 예레반 등에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동유럽 지역에서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에 특화된 교원을 양성하는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견 교원에게 우즈베크어, 폴란드어 등 현지의 특수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특수 외국어 교육 과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계 차원에서도 재단의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장향실 학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3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